

“귀농귀촌하면 영광입니다”

영광군,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 체계적 상담·정착지원에 성공적 농촌생활 정주여건 조성



영광군은 2020년 전라남도 귀농산어촌 종합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에 전국 대표 귀농귀촌 청년창업 우수 지자체상 수상 이후 두 번째 수상으로 '귀농귀촌하여 살기 좋은 시군'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에서 목포를 제외한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산어촌인 유치 실적, 도시민 유치를 위한 홍보, 귀농산어촌인을 위한 교육 및 지원사업 등 8개 분야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영광군은 체계적인 상담과 정착지원으로 귀농귀촌인의 안정

적인 정착에 힘쓰며, 지역민과의 화합을 이끌어 성공적인 농촌생활을 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한 것에 큰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영광군은 지난 8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합계출산율 2.54명으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의 출생아 수와 결혼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의 위상을 널리 알렸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인구감소로 지방소멸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귀농귀촌 우수 지자체상 선정은 매우 뜻깊은 성과이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하여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광=서희권 기자

함평군보건소, 감염병관리 결핵예방사업 평가 우수기관



함평군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0년도 감염병관리 및 결핵예방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돼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올해 보건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소, 함평성심병원 등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300여 명에 대한 상담과 2300여 건의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지역 공공장소와 상가 등에 마스크·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전통시장, 공용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소독도 수시로 실시했다.

특히 1:1 전담관리 공무원을 통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해외 입국으로 인한 자가격리자 410명을 밀착 관리하면서 지역 확진자 발생 이후 n차 감

염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평이다. 보건소는 또 결핵예방사업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 9월에도 대한결핵협회 이동검진팀과 연계해 65세 이상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결핵 전수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전수검진을 통해 총 327명이 검사를 받고 73명이 유소견자 판정을 받았으며, 보건소는 유소견자에 대해 확진 검사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등 검진 추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이번 검진은 질병관리본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마을회관 등 현장에서 이동식 흉부 X-Ray 촬영을 하면 대한결핵협회 본부에서 실시간 원격 판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검진 대상자가 65세 이상 고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면 접촉과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동원격진료를 활용한 부분이 이번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을 보인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암군, 민선7기 공모사업 45개사업 600억원 유치

영암군은 민선7기 '하나된 군민, 풍요로운 복지영양' 건설에 필요한 마중물 마련을 위하여 동분서주한 결과 11월 현재 총 45개 사업에 선정되어 600억원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군은 낙후된 영암읍을 매력적이고 안전한 도시로 재탄생시킬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168억원)의 선정을 필두로,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43억원), 용당지구 배수개선사업(95억원), 입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20억원) 선정 외에도 농림축산, 관광, 복지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며 지역 현안 사업 설명 등을 진행하는 등 총력을 경주해왔다.

또한, 영암군은 정부의 한국형 뉴딜사업 추진과 급변하는 대외 경제의 변화에 따른 전략 수립을 위하여 분야 전문가를 초청 지난 10월 29일 정부예산 및 국·도비확보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여, 2021년 정부 예산 동향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하우 전수예회를 열었다.

영암=조대호 기자

무안군, 코로나19 대비 원격근무 모의훈련 실시

확진자 발생시 청사방역·방호조치계획 따라 부서별 1/3 참여

무안군은 코로나19 비상상황 발생 시 행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온라인 원격근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지난 19일과 20일에 실시된 모의훈련은 군 청사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청사방역과 방호조치계획에 따라 모든 실과소와 읍면에서 실시되었으며 부서별 현원의 1/3이 참여했다.

무안군은 비상훈련을 통해 ▲상황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장애요인 대응 매뉴얼 ▲재택근무 전산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모의훈련은 코로나19 비상상황 발생시 대·내외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재택근무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메

뉴얼에 반영함으로써 비상사태 대응과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 전자결재 확대 시행, 영상 회의시스템 추가 구축 등 비대면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섬 군수의 수산정책, 전국 수산행정 패러다임 바꾸다

신안군 전국 최초 시행 임대어선, 내년 국가시책으로 채택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이 중앙정부의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의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된 '어선 임대사업'은 신안군이 민선 7기에 들어서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박우량 군수의 수산정책이다.

19일 신안군에 따르면 2021년도 국가예산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이개호 국회의원과 지역구 의원인 서삼석 국회의원 등

이 적극 나서 '어선구입 임대사업'에 국비 38억원을 요구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자본 여건상 어려웠던 청년 어부들에게 어선 임대를 돕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군은 이번 사업추진을 위해 '신안군 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단법인 신안군 어선업육성협회를 구성, 현재까지 군비 27억원을 투입하여 8척의 어선을 임대 운영 중에 있다.

군의 '청년소득 임대어선' 사업은

어업에 필요한 어선 및 어구를 신안군이 구입해서 어업인에게 연간 사업비의 0.5%의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주면서 어업인들이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하면 소유권도 넘겨줄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지난 10일 한국수산자원공단 주제 토론회에서 "최근까지 실시한 수요조사에 215명의 어업인이 101척의 어선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만큼 정부에서 추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더 많은 청년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 시책사업으로 도입하여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년들이 1004 섬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올려 모두가 잘사는 신안건설이 목표이며, 천사8호에 이어 천사100호까지 탄생 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과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대어선은 흑산 4척, 비금·증도·도초·하의면에 각 1척씩이 조업중이다.

기동채재본부

목포시 "수도시설 동파 미리 대비하세요"

목포시가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 15일까지 동파민원처리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면 수도물 사용이 불가능하고 각종 생활 불편이 발생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다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사전에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수도계량기의 동파, 동결 예방 조치 방법으로는 계량기함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밀폐하여 찬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온을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강추위가 지속되면 수도

관심과 노력으로 사전에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수도계량기의 동파, 동결 예방 조치 방법으로는 계량기함 내부를 헌옷 등의 보온재로 덮고 비닐커버 등으로 밀폐하여 찬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보온을 해주어야 한다.

아울러 강추위가 지속되면 수도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필히 수도꼭지를 틀어 소량의 물을 계속 흘려보내 수도관이 동결되는 것에 대비하도록 하고, 만약 수도관이 얼었을 때에는 미지근한 물로 수도관을 천천히 녹여서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동파민원처리 상황실(☎272-3000, 270-8564)'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박정수 기자



코로나19 극복

대숲맑은 담양 공동브랜드

함께해요!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청정자연에서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수확한 건강한 우리 농산물과 함께 코로나19의 빠른 극복을 기원합니다.